

신안군 선심성 예산 집행 빈축

농로 포장·배수로 건설 대신 마을안길 포장 33억원 써

신안군이 지난해 말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대해 군의회 승인을 얻고도 일부를 예산목적과 동떨어진 곳에 사용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만 사용해야 할 '채무부담행위 예산' 155억원을 농로포장 사업, 배수로 시설과 무관한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에 사용해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채무부담행위 예산 155억원을 모두 293건의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한 다며 군의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군은 소규모 농업기반사업과 무관한 노인정 응벽설치 공사를 비롯해 ▲연전 진입로 사리부설 ▲관양기 교체사업 ▲안길포장공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 50여건에 '채무부담행위 예산' 32억73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또 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추진한 압해면의 경우 압해 신장마을 안길을 비롯해 분배·학교·송곡·대천·신용·북룡 3·북룡 4 마을 등 8개 마을 안길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조달을 통한 공제입찰 경쟁을 2회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급으로 조달한 아스콘 3억3400여만원 어치를 군수 측근이 운영하는 H 아스콘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채무부담행위 책임까지 지면서 추진한 사업을 감시·감독해야 할 제5대 신안군의회 역시 군의원 10명중 흑산면을 제외한 9명에게 해당 지역구 읍·면 지역에 배정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사비를 5억~10억원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45·안좌면)씨는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신안군이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5억원이란 막대한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심성 예산집행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런 사업은 전체 큰 틀로 보서는 목적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1차 추경에 세워야 할 재원이 없어 각 실과소에서 사용되는 공공부서 운영비를 대폭 삭감해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한편 최근 전남도는 신안군에 사업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군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어르신, 크게 아~ 해보세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지역 의료진과 함께 최근 신안 비금과 도초, 흑산, 진도 조도지구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의료검진활동을 벌였다. 서부사무소는 분기별로 낙도지역 주민 교감프로그램인 ‘텔-케어(Tel-care)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나서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서해해경 VTS센터 개소 첫 해상교통관제 시작

해양경찰이 처음으로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시작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오후 2시 진도군 일회면에 있는 VTS 센터에서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그동안 연안 해상교통관제업무는 국토해양부에서 맡아왔으나 지난 2007년 12월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된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해경으로 이관됐다. 주요 항만 관제업무는 국토해양부가 계속 맡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그동안 해상교통안전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토부로부터 인수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진도 VTS에는 ▲레이더 5대 ▲방향탐지기 2대 ▲무선 통신망 7대 등 최첨단 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해양경찰관 17명이 근무한다.

담당구역은 신안 도초면을 비롯해 대흑산도, 제주 추자군도, 해남 어란진을 연결한 내측 해역이다. 진도 서망항을 기점으로 반경 63km, 해역면적 3800km로 제주도 면적의 2.2배에 이른다.

전성권 센터장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해상 실크로드, 그 미래를 보다

해양문화연구소 내일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중국 등 아시아와 유럽을 뱃길로 연결한 '해상 실크로드'의 역사성과 미래사적 전망을 하는 학술대회가 목포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성낙준)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원장 강봉룡)은 공동으로 8일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와 교역항'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일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스리랑카 토폴로 ▲말레이시아 말라카 ▲중국 광저우·취안저우(泉州)·샤먼(廈門) 등 아시아 주요 교역항을 중심으로 해상 실크로드 상에 펼쳐진 항구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게 된다.

이날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전 농림부 장관)의 '해상 실크로드의 미래사적 의의와 전망'이라는 강연과 유원적 목포대 교수, 송위지 성원불교대학 교수, 이금영 중국 하남대학 교수, 하마시타 다케시 일본 나카야마 대학 교수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왕연무 전 중국 취안저우 해외교통사박물관장, 윤용혁 공주대 교수, 이희수 한양대 교수 등 국

내외 전문 학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고대의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의미를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입체적 다면적 역할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21세기 새로운 세계사의 개척은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민족의 살길을 개척해야 할 '실크로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으로부터 타라라만만 사막 등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교역로(실크로드)와 대비해 중국 남부에서 출항해 동남 아시아, 인도 등을 경유해 아라비아, 유럽에 이르는 해상 교역로를 가리킨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내외 전문 학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고대의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의미를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입체적 다면적 역할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21세기 새로운 세계사의 개척은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민족의 살길을 개척해야 할 '실크로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으로부터 타라라만만 사막 등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교역로(실크로드)와 대비해 중국 남부에서 출항해 동남 아시아, 인도 등을 경유해 아라비아, 유럽에 이르는 해상 교역로를 가리킨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해남군수협은 소풍물 '땅끝에찬' 운영과 함께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 등에서도 판매망을 넓혀갈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추석절 해남수협 상품 '불티'

돌김 등 20여종 6천여세트 판매

해남군수협의 브랜드상품이 추석 명절 기간동안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해남군수협은 지역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에서 가공까지 직접 참여한 브랜드 상품 '땅끝에찬'을 출시, 지난 8월부터 판매에 나섰다.

평소 하루 주문 판매량이 평균 20여 세트에 불과했으나 추석을 앞두고 8월부터 1일 평균 200여 세트의 주문이 들어와 명품 수산물세트(지주식 돌김·멸치 등 20여종) 5000세트와 기획상품으로 준비한 반건조 생선세트 500세트가 모두 소비됐다.

“서울시는 낙지 파동 피해 보상하라”

무안·신안군의회 대책 촉구

낙지 주산지인 신안·무안지역 어민들이 '중금속 낙지' 조사결과를 발표할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중금속 초과 검출 발표는 낙지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엷친 데 덮친 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공식 결론을 내린 만큼 서울시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근 신안군의회 의장은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이 서울시를 향해 방문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 역시 전날 의원 간담회를 갖고 낙지 중금속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돕는데 뜻을 모으고 지역 낙지어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산 무안군의회 의장은 "중금속 파동 이후 급감한 낙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소비촉진 활동을 펼쳐 어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계획"이라며 "서울시도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안·무안 지역 어민들은 서울시의 '낙지머리 중금속 검출' 발표로 큰 피해를 봤다며 오는 9일 서울시 보건국 식품안전추진단을 향해 방문하고 사과와 함께 담당공무원 면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조업 단체 등 피해 규모를 집계해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김민준기자 wncho@

가을, 고산문학에 취해볼까

해남군, 15일 녹우당 등지서 '문화축전'

조선중기 시인인 고산(孤山) 윤선도(1587-1671) 선생의 문학혼을 기리기 위한 '제10회 고산 문화축전'이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해남에서 열린다.

6일 고산 문학추진위원회(위원장 오세영)에 따르면 이번 축전은 윤선도의 종택인 녹우당과

문화예술회관, 해남문화원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녹우당에서 '전국 고산 청소년 백일장', '시서화 백일장'으로 축제의 문을 열고 해남문화원에서 '고산 문학의 콘텐트화 방안'을 주제로 문학 세미나가 열린다.

또 녹우당을 무대로 시낭송, 판

소리 공연 등 '고산 문학의 밤'이 마련된다. 초경강연회와 고산 시가 낭송회, 고산 문학대상 시상식도 열린다.

올해 고산 문학대상은 시 부문에 시집 '반구대의 암각화 앞에서' (문학사)의 이경천 한국시인협회 회장, 시조부문 '우물 안 개구리' (고요아침)의 김재현 시인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오는 15일 문을 여는 윤선도 유물전시관에는 '국보 240호'인 공예 유물 등 자화상 진품이 전시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서강빌딩 매각공고
(위치: 광천파출소 사거리 대로변)

- 물건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64-6
- 면적: 대지: 734㎡(225평) · 건물: 4,764㎡(1,412평)

두암신용협동조합
총무과 TEL. 062-263-0136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The S1 더실아파트

25% 파격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고층 대물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중개 문의환영!!
분선동 제일 할인 물건 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제석공인중개사
분양문의 062)673-3100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임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 분할가능 1층이 옷매장들로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사무실, 학원) 적합 조립, 제조회사 가능하며 지하 주차장 완비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000평 700평 300평 250평 196평
134평 100평매물(다량보유)
급매: 비아-하남3공단전입로 3거리 코너 235평 평당215만원
구함: 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공장: 해남공단, 광동공단, 첨단공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첨단지구: 상가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 (다수보유)

첨단지구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체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대불산단 공장매매 (임대가능)
▶ 공장용지: 15,000평
▶ 건물: 900평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장성동화 공장매매 (임대가능)
▶ 공장용지: 2400평(계획관리)
▶ 건물: 580평(동력200k)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대지: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자연녹지: 700평 ▶ 일반공업지역: 800평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 대지: ①500평 ②1200평
▶ 준주거지역(동림2지구 건너편)
▶ 건물: ①상가 30평, 창고80평
②상가 200평 공장200평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 대지: 2000평(생산녹지지역)
▶ 6차선 도로변(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 매매가격: 17억원 (건물 600평 포함)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영일 신분점, 대전동 소방서건너편)